

死에 對한 研究(三)

韓稚振

죽는 그 瞬間이야 二十四 時間하로 어느 새이든지 □退하겠지만은 細密한 多數學者들의 □查한 것을 根據하여 判□할진대 大概 아침 五時로부터 同 七時까지의 새에 죽는 이가 第一 만타고 한다. 펜레이손은 英國서 一萬三千名의 死者를 □查하여 본 즉 多數는 아침 五時에서 七時 동안에 死□하였다 하며, 스나이더는 伯林서 었던 雜誌에 記錄하기를 五萬七千 名의 死者는 大概가 아침 四時에서 七時사이에 되었다하며 쎄로쓰도 말하기를 米國서 千名에 죽은 사람은 거이 아침 六時에서 七시에 만히 죽었다한다. 以上에 事實들을 □하건대 아마 아침에 人氣가 第一□弱해 지는 것이 分明하고 잘아서 死亡者도 만히 出現하는 줄 알겠다.

우리는 普通 듯기를 죽는 其 瞬間은 아마 第一로 苦痛이 될 것이라 하며 그 最 上的 苦痛으로 因하여 마춤내 永眠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事實에 들어가 보면 別로 苦痛이 업다한다. 죽는 其 □時야 말로 아조 平安하다. 는 事實까지 잇는 것을 우리는 안다. 오슬너搏士는 이 아래와 가티 이 苦痛 問題에 對하여 말했다. 『나는 五百名의 죽는 形便을 視察하였는데 大概는 그 죽는 □□이 安□해 보이고 쏘는 苦痛을 別로 甯기지 아니하며 압흐다는 아모런 表示도 업고 다만 永眠的한 잠으로 安□히 도라가는 것 가틀 뿐이다.』 옛웨드클락搏士는 『死는 生産보다. 압홀것 업다.』고 말했고 쎄취搏士도 亦是 『死의 最後瞬間은 그리 어렵지 안타』고 說明하였다. 토마쓰스펜리의 『一般科學』에 寄書한 것에 依支하면 사람이 죽는 瞬間에까지 오고 보면 氣□脈□하여 젓슴으로 죽는 것을 別로 感覺지 못한다한다. 그리고 었던 □死는 勿論 單番에 甯이 나지만은 病死가튼 것은 여러 날 여러 달을 經過하게 되는 故로 血□環이 □로 잘 가지 못하게 되어 잘아서 血에 □□瓦□가 混合함으로 痛感을 잘 甯기지 못하게 된다. 病者는 이리하야 □□□□狀態에 至하는 것이다. 終末에는 아조 無感覺에 當到하고 만다.

엇던 때에는 死亡者가 □終 時에 있어서 自己의 死를 意識한다고도 한다. 다시 말하면 意識이 意識의 死亡을 意識한다는 것이다. 그러면 엇더케 意識 自體로써 自己가 □하는 것을 알까? 내가 當場 죽는 □地에 잇스면서 엇더케 내의 죽음을 알 수가 잇슬가 하는 것이 難間 中에도 大 難間이다. 이 難間을 보아서 意識이 아조 □하는 것이 아니라 □間消息하는 것이라고 해도 無妨할가?

또는 죽기 前 몇 時間 或은 몇 날 동안은 自己가 죽겠다는 表示를 만히 한다고 한다. 더구나 自己의 모든 過去의 經驗이 一時에 다 意識되며 □□한다고 한다. 물에 빠졌□ 사람의게 물어 보면 自己의 全 過去經驗이 展開 되드라 하는 이야기도 있다. 범에게 물려가 든 사람의 이야기를 듯드리도 其 最終時間을 當함에 짜라 過去의 全 經驗과 生覺이 回想되드라고 한다.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比□하여보면 사람이 모든 생에 對한 抱束과 肉體에 對한 義□를 □棄할 때에는 그 精神的 生活은 아주 自由가 되고 만은 것 같다. 이 點에 잇서 깊은 研究를 要한다.